

화랑설화마을 파크
야간 개장

9월 27일까지

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달 27일부터 한 달간 화랑설화마을을 야간 개장했다. 화랑설화마을은 금호읍 거여로 426-5 일원에 화랑 설화를 테마로 조성된 관광테마파크로 작년 10월 27일 개관해 현재까지 약 5만여명이 방문했다.

화랑설화마을을 야간개장은 지난 22일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시·체험시설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야외는 밤 10시까지 개방했다.

여름방학과 휴가를 맞아 야간개장 기간 약 7천 7백여명이 화랑설화마을을 방문하였고, 그 중 약 7백여명이 야간에 다녀갔다. 영천시민들뿐 아니라 대구 및 인근 시·군에서도 화랑설화마을을 많이 찾았다.

이번 야간개장 기간 화랑설화마을을 방문한 시민들은 폭염과 코로나 19로 지쳐있었는데 무더위를 피해 체험시설을 이용하고, 또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10월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등을 더욱 풍성하게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대구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확정 1주년 백서 발간

이전건의서 제출시부터 확정시까지 사업추진 과정 담겨
7년 기다림 성사 끝에 군위·의성군면에 보금자리 잡아
“성사까지 각종 갈등 이어 졌지만, 소통으로 난제 풀어”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 1주년을 기념해 이전건의서 제출 시부터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을 담은 첫 번째 백서를 발간한다.

지난 2020년 8월 28일, 전국 최초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됐다. 대구에 있는 민·군 공항이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새 보금자리를 찾은 것이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 7년이란 긴 기다림 끝에 성사된 일이지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그동안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도심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군 기지와 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것은 도시발전엔 큰 걸림돌이기도 했다.

게다가 대구국제공항은 1961년 개항 이후 2016년부터 항공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2019년 연간 이용객이 467만명을 기록함으로써 계획된 연간 여객 처리용량인 375만명을 훌쩍 넘어 주차공간 부

족, 잦은 항공기 연착 및 대기공간 부족 등의 이용객 불편이 속출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백서에는 2014년 5월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2020년 8월 28일 최종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오롯이 담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대구 군 공항의 이전 배경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정을, 제2장에서는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건의서 평가, 예비이전 후보지 및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및 주민투표 실시, 공동후보자 유치신청 및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을 기록했다.

또 제3장에서는 이전 후보지역 주민, 중앙부처, 유치신청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및 여러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상생 과정을, 제4장에서는 이전사업의 기대효과, 종전부지 개발 구상 및 앞으로의 계획을 수록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지난해 군위군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확정 장면. 사진=대구시

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의 군 공항을 이전함으로써 약 51조 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구·경북 유사 이래 가장 큰 뉴딜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거대한 하나의 군 공항이 이전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인 국방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영겨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일이다.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갈등 넘어 갈등’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었다. 특히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님비(NIMBY)와 뽀피(PIMBY) 의식이 난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대구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지에 초점을 맞추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유치신청 과정에서 배수의 진을 친다는 생각(‘벼랑끝 전술’)으로 유치신청 기한을 정해 ‘기한 내 신청이나, 무산이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면 승부수’를 던지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왔었다.

이에 마침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최종 이전부지를 유치 신청기한 하루 전에 극적으로 합의하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었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군위군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진심을 다해 설득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구·경북이 하나 되어 이번처럼 똘똘 뭉친 적이 또 있었나 싶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강승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kr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 확정

대구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절차 1년여 조기 시행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국비지원 법적근거 마련
상업·문화·관광시설 등 환승센터 내 앵커시설 사업자 유치에 총력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최종 반영돼 서대구역에도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이하 환승센터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 지정 전 단계의 법적 절차이다.

환승센터 기본계획은 서대구역과 같이 광역교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교통거점, 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국가계획이다.

이번 반영으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환승시설사업 보조 등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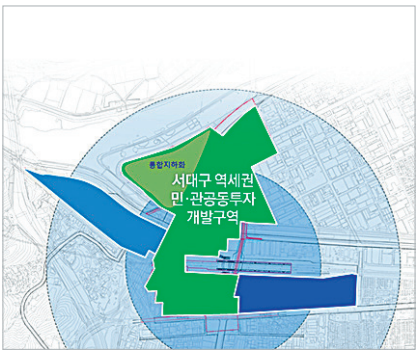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지난 7월 5일 국토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대구권역 광역교통시설 신규사업으로 선정됐고, 이어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에도 반영돼 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법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법정계획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올해 하반기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개발계획수립을 당초 2022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법정계획 반영과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등 연계사업의 행정절차 단축으로 사업 조기추진 여건이 형성돼 본 계획을 1년여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발계획에서 서대구역·고속버스터미널 등 광역교통 체계와 시내버스 등과의 연계·환승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동한 판매·유통, 문화, 주거, 상업시설 등 다양한 앵커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우수 앵커시설 사업자 유치를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구시는 사업기간 단축이 곧 사업수익성 향상이라고 보고, 개발계획수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도. 사진=대구시

립과 함께 복합환승센터 지점에 필요한 국토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2022년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의 성공여부가 우수한 앵커시설 유치인 만큼 지원조례 제정 등 앵커시설 투자자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승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m

이철우, “수소경제 대비해야”

환동해지역 간부회의 개최
“포항~울릉 여객선 안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오전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환동해지역본부 간부들과 업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에너지, 해양문화 및 교육활성화, 울릉도 카페리 공모선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동해안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차세대 먹거리인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수소연료 전지발전 클러스트 구축 등 국책사업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수소팀’ 신설을 주문했다.

또 경북도가 동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학 연구를 선도해 학문, 해양문화, 해양산업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포항 신행만과 울릉도 사



환동해본부 간부회의 장면. 사진=경북도

동항로에 포항해양수산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형 여객선 ‘뉴시디오펜호’ 취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세기 바다시대를 맞아 동해안이 가진 장점을 특화해 미래 동동해 지역의 먹거리를 위한 해양 수산분야 신규 사업을 앞으로 도 지속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일 장세용 구미시장, 양영철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등과 ‘친환경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강승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m

시민과 함께 이룬
또 하나의 쾌거

20년간의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확정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광주만을 위한 노선이 아니라,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오랜 기간 함께 염원해 온 ‘동서희망 철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통합, 남부광역경제권 구축, 영호남 산업 상생 발전 등 이제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 화합을 기치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며, 한걸음 한걸음 달려 나갈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
Daegu

서대구
Seodaegu

광주송정
Gwangju Songjeong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잇는 길이 198.8km,
4조 5,15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하는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서대구

고령

합천

거창

장수

합양

순창

남원

광주

광주송정